

카지노 복합리조트 여수 경도의 꿈 '성큼'

인천·부산·진해와 함께 1차 관문 통과 ... 12월 '2+α' 최종 선정

지역 정치권·경제계 역량 모아

여수 경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후보지 수가 늘어난 데다 올 연말 이 가운데 2곳 내외만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내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27일 문체부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에 응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여수 경도와 함께 인천·부산·경남 진해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여수 경도 1개소,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1개소,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6개소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실시해 오는 12월 이들 4개 지역 9개 후보지 중 2개 안팎의 복합리조트 최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개발제안서(RFP) 공고내용에 따르면 사업참여 청구 자격은 외국인 투자를 5억 달러 이상 포함한 투자규모 1조원 이상 사업자에 한정된다. 외국인 투자금 5억 달러 중 5000만 달러는 사전에 납입해야 한다.

9개 후보지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4년 이내에 제안서에 적은 투자를 이행해야 하며 문체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카지노사업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5000㎡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계획서, 카지노운영 계획서,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제안서(RFP)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6월 사업자들의 투자수요 확인 및 개발 구상에 대해 여수를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등 9개 지역 34개 사업자의 안을 접수한 바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2 인천 중구 무의동
- 3 인천 중구 오서동
- 4 인천 중구 을밀동
- 5 인천 중구 용평동
- 6 인천 중구 용평동



- 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2동
- 8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 9 전라남도 여수시 경포동 대경도

북, 강원, 충북 등 9개 지역 34개 사업자의 안을 접수한 바 있다.

전남도는 개발구상(RFC) 제출 이후 여수 경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국내 국민 관광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복합리조트 개발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휴가를 반납한 채 김중덕 문체부 장관 등 관계 인사 등을 연쇄 접촉했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회와 각 시·군, 경제계, 시민단체 등도 지역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허가대상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1월말 제출하게 될 개발제안서(RFP)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점 보강해 최종적으로 정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늦여름 햇살 아래...명옥현의 백일홍 붉디 붉어라 27일 오후 담양군 고서면 '명옥현 원림(명승 제58호)'의 백일홍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붉은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오솔길을 거닐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기아차, 광주 청년들에 '통 큰 투자'

2018년까지 240억원 투입

5400명 청년창업 돕고

연 100명씩 청년인재 육성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광주창조혁신센터에 240억원을 투입해 5400명 규모의 청년창업을 돕고, 연간 100명씩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등 '통 큰 투자'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7일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6000명을 채용하고 1만

2000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의 연평균 채용인원은 국내 외 인턴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으로 올해 채용 계획인 9500명에 비해 25%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까지는 5년간 총 6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구직자 교육과 실습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을 돕고 협력사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간 현대차그룹의 직무교육 과정과 협력사 인턴십 과정을 각각 3개월씩 이수하면 현대차 그룹사 및 협력사에 입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기업 및 대학을 포함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지

역에서 각각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2018년까지 총 564억원이 투입돼 4500명의 구직자에게 교육 및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3년간 자동차분야와 소셜벤처 창업지원 등에 향후 3년간 5400명을 대상으로 약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담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실제 채용과 연계해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입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기업 및 대학을 포함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지

체육특기자 전형 학생부 반영 권장

201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현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더욱 커진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도 권장된다. 현재 대학은 체육특기자를 주로 입상 실적과 실기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학생부는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자제하는 기조도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설계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별고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 정상 시민 품으로 ▶3면

금호산업 매각 다시 원점 ▶10면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이 되게 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찾아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